

2024 새해 이렇게

김순호 구례군수

관광도시·치유산업 선도도시 도약 원년 만들 것



양수발전소 일원 오산 케이블카 연계 친환경 관광거점으로 육성 자연드림 힐링 클러스터·농업자원 활용 치유농업 캠퍼스 조성

“1조4000억원 규모 양수발전소 유치를 계기로 구례가 새로운 친환경 관광거점으로 거듭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광주일보와 최근 가진 새해 인터뷰에서 국책사업인 양수발전소 유치로 인해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치유산업 선도도시 육성 등 현안사업의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선포한 탄소중립 휴살리기 운동과 산동 온천 골프장 조성 등 역점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도 소개했다.

김 군수는 우선 “군민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1조4000억원 규모 양수발전소를 구례에 유치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사 기간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일자리는 6000개로, 발전소가 준공되면 100여개의 상시 일자리가 창출된다.

지방 세수는 10억원가량 증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김 군수는 “양수발전소 상하부지 주변을 관광자원화하고 오산 케이블카 등과 연계해 양수발전소를 구례의 새로운 친환경 관광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가 구례가 체류형 관광도시, 치유산업 선도도시로 거듭나는 본격적인 도약의 해로 삼았다. 구례군은 관광객들이 머무르며 체험하는 체류형 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오산 케이블카를 포함한 2000억원 규모 섬진강 관광레저 단지과 1000억원 규모 온천 골프장 유치가 대표적이다.

오산 케이블카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오산과 섬진강 주변 지역과 연계한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대숲길 주변 ‘스마트 복합점터’와 힐링생태공원, 그리고 스카이라이프를 조성할 계획이다.

섬진강 관광벨트의 거점시설인 ‘그린케이션’과 ‘레인보우 워크’를 조성해 구례 관광의 새로운 명소가 만들어낼 예정이다.

지리산정원은 새롭게 탄생한 주제 정원화 함께 재개장하고, 생명 치유 가옥단지 등 숙박시설 20동을 추가 운영한다.

지리산 정원과 연계할 지초봉 옛 봉수대를 복원하고, 산악자전거 구간을 넓힌다. 조만간 산림교육센터도 착공할 방침이다.

화엄지구에는 반달가슴곰 보금자리와 ‘화엄4색 블루투어’ 조성을 마치고, 천년고찰 문화 탐방로와 생명 치유 소나무 숲길, 맨발길 등 치유의 길을 확대 조성한다. 피아골지구에는 토지면 조동마을에서 원기마을까지 1구간 순환도로와 힐링로드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리산 온천지구에는 연중 끊임없이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물놀이장과 전망탑, 미로공원 등을 신규 개장하고 스카이라이프를 조성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휴살리기’ 운동을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구례군은 자연자원 감정을 살린 치유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올해는 토양 정밀조사와 벗꽃 힐링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박람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구례군은 치유병원과 향암 농식품 제조공장 등이 들어서는 자연드림 치유·힐링 클러스터와 농업자원을 활용하는 치유농업 캠퍼스 조성을 통해 치유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워낼 계획이다.

지난해 조성 업무협약을 맺은 27개 규모 구례산동 온천 골프장 사업은 스포츠·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로 삼는다. 현재 체육시설 사업 계획 승인, 환경영향 평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가 준비되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의 아름다운 자연을 살려 구례를 체류형 관광도시, 치유산업 선도도시로 키워나가는 것이 최적의 전략이라고 확신한다”며 지역민들에게 “구례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빛나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전남 첫 운영 순천 달빛어린이 병원 평일 평균 60명 이용

주말엔 하루 325명 소아 환자 진료

전남에서 처음 운영을 시작한 ‘순천 달빛어린이 병원’을 운영한 지 한 달가량 동안 평일 평균 60명의 어린이 환자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진료를 시작한 순천 달빛어린이병원 2곳(현대여성아동병원·미즈여성아동병원)을 평일 평균 60명, 주말 평균 325명의 소아 환자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 이용 환자는 순천 거주자가 6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양 14.2%, 여수 5.7%, 고흥 4.5%, 구례 2%, 보성 1.5%, 기타 3.9% 등 순이었다. 순천뿐만 아니라 전남 동부권 인근 시군에서도 다수의 소아 환자가 이용하는



전남 1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현대여성아동병원.

것으로 분석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자들은 독감이 유행하는 겨울철 소아과에서 진료받으려면 4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는데, 주말에도 대기시간을 줄여 진료를 빠르게 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순천시 관계자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시민들의 호응이 높음을 실감한다”며 “올해는 순천형 소아 응급실 구축과 인산부·신생아 급급차 운영 등을 통해 응급의사각각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통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시가 위촉한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물가 감시 체계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 모니터요원 10명 위촉 설 물가 관리

숙박업소 등 800여곳 요금 조사

여수시가 올해 물가모니터요원 10명을 위촉하고 설 명절에 앞서 본격적으로 물가 관리에 나섰다.

물가 감시 요원은 매달 800여 곳의 요금을 들여다본다.

한 해 동안 주요 관광지 음식점과 숙박업소, 개인서비스업소 680여 곳의 요금을 살펴본다.

10곳의 주요 생활물가와 명절 성수품 물가 조사 등도 벌인다.

여수시는 조사한 가격정보에 대해 인상업소가

격 상승 요인을 파악하고 위생 점검 등 행정지도도 할 방침이다.

매달 여수시 누리집에는 물가 조사 결과를 게시한다.

여수시는 지난 10일 시청 회의실에서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를 열고 요원들에게 물가 조사 운영 방향,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을 안내했다.

여수시는 “물가안정을 위해 생활과 밀접한 주요 생필품과 다가오는 설 성수품 요금 등 가격 동향을 파악해 물가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원 지원

최대 3개월간...일괄 신청 가능

광양시가 올해 신규시책사업으로 남성육아휴직 근로자에게 월 30만원 최대 3개월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액 시비(5000만원)로 추진된다.

장려금은 올해 1월1일 이후 육아휴직일수에 대

해 적용된다. 대상자는 고용노동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남성 근로자로 휴직 신청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뒀야 하며, 대상 자녀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다. 월 단위로 또는 3개월분을 일괄 신청해도 되지만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

대상자는 신청서(읍면동사무소 비치)와 신분증, 장려금 지급 통장사본, 육아휴직급여 지급결

정통지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장려금은 신청 월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계좌로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

장려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광양시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소와 광양시 여성가족과장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통해 아버지의 육아 참여가 확대되고 가족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